



# 나달 '1000승'

## ATP 투어 롤렉스 파리 마스터스에서 달성...역대 4번째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단식에서 통산 1000승을 달성했다. 나달은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TP 투어 롤렉스 파리 마스터스(총상금 334만 3725 유로) 대회 사흘째 단식 2회전에서 펠리시아노 로페스(64위·스페인)에게 2-1(4-6 7-6<7-5> 6-4) 역전승을 거뒀다. 이로써 나달은 1274승의 지미 코너스(은퇴·미국), 1242승의 로저 페더러(4위·스위스), 1068승의 이반 렌들(은퇴·미국)에 이어 통산 네 번째로 1000승 고지를 밟은 남자 선수가 됐다. 1000승 201패를 기록한 나달의 승률은 83.3%다. 코너스가 1274승 283패로 승률 81.8%, 페더러는 1242승 271패를 기록해 승률 82.1%다. 렌들은 1068승 242패로 81.5%의 승률이라 1000승 이상

선수 가운데서는 나달의 승률이 가장 높다. 16살 때인 2002년 5월에 처음으로 ATP 투어 단식 본선에서 승리를 따낸 나달은 클레이코र्ट에 유독 강해 '클레이코र्ट의 황제'로 불렸으나 1000승의 코트별 분포를 보면 하드코र्ट에서 482승으로 가장 많이 이겼고 클레이코र्ट 445승, 잔디코र्ट 71승 순이다. 이는 물론 하드코र्ट 대회가 더 많이 열리기 때문이다. 코트별 승률은 클레이코र्ट에서 91.8%로 가장 높고, 하드코र्ट(78.1%)과 잔디코र्ट(78.0%) 승률은 비슷하다. 10월 프랑스오픈에서 우승, 개인 통산 20번째 메이저 대회 단식 정상에 올라 페더러의 그랜드 슬램 남자 단식 최다 우승 기록과 동률을 이룬 나달은 이번에도 프랑스 파리에서 뜻깊은 기록을 하나 추가

했다. 첫 승 이후 약 9년만인 2011년에 500승을 채웠던 나달은 이후 또 약 9년 만에 500승을 더 보태며 '1천승 클럽'에 가입했다. 나달은 같은 왼손잡이인 로페스를 상대로 최근 두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패했고, 이날도 1세트를 먼저 내줬다. 서브 에이스를 로페스가 22개, 나달은 16개를 쫓는 화끈한 파워 대결 속에 나달은 2세트 타이브레이크 3-3에서 내리 3포인트를 따내 고비를 넘겼다. 나달은 조던 톰프슨(61위·호주)과 8강 진출을 다했다. 이번 대회 통시드를 나달이 받았고, 2번 시드인 스테파노스 차치파스(6위·그리스)는 전날 2회전에서 탈락했다. /연합뉴스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이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롤렉스 파리 마스터스 대회 단식 2회전에서 펠리시아노 로페스(64위·스페인)를 물리친 뒤 통산 1000승을 달성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권순우 뜬다...한국테니스선수권 오늘 개막

국내 테니스 대회 가운데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제75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가 6일부터 15일까지 충남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올해 US오픈에서 남자 단식 2회전까지 올랐던 권순우(당진시청)가 남자 복식에 출전하고, 단식에는 이덕희(서울시청)와 남지성(세종시청), 정운성(의정부시청), 홍성찬(세종시청) 등이 우승 경쟁을 벌인다.

또 여자 단식에는 국내 랭킹 1위 한나래(인천시청)가 5년 만에 한국선수권에 출전하고 2013년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코리아오픈 8강까지 올랐던 장수정(대구시청)도 우승 후보로 거론된다. 여기에 3년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정수남(강원도청)과 김다빈(인천시청), 박소현(성남시청)도 눈여겨볼 선수들이다.

남녀 단식 우승자에게 2021년 국가대표 자동 선발 특전을 주고 훈련 연구비 500만원씩 지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며 매일 2회 대회장 전체 방역 및 소독을 할 예정이다. 예선 및 본선 경기는 대한테니스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하고, 준결승부터 STN스포츠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경기를 볼 수 있다. /연합뉴스

# 대한항공의 마법...주력 센터 이탈에도 블로킹 1위

새 사령탑 산틸리 감독 변화 이끌어 조재영·진지위 등 활약 중앙 '탄탄' 진상현 이적·김규민 입대 공백 메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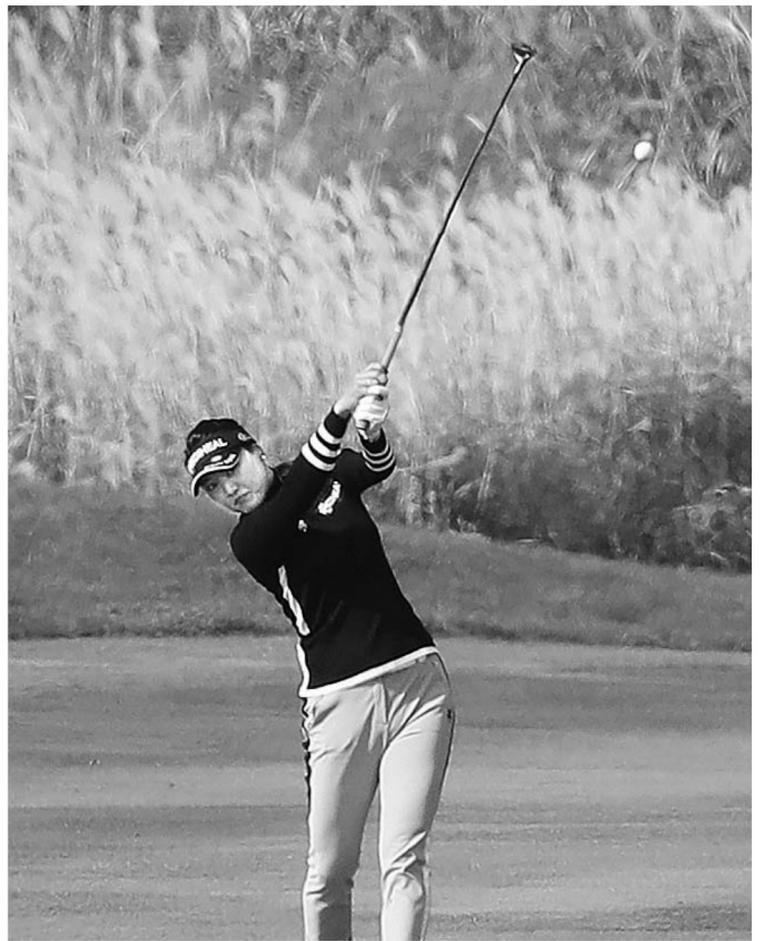
남자 프로배구 대한항공은 주력 센터 2명을 잃은 상태로 2020-2021시즌을 시작했다. 베테랑 센터 진상현이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OK금융그룹으로 이적했고, 김규민은 지난 시즌 뛰어난 활약을 뒤로 하고 입대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이수황과 한상길을 FA·트레이드로 영입했지만, 험거워진 센터 라인을 이 시즌 최대 불안 요소로 꼽았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 밖 결과가 나왔다. 4월까지 1라운드 5경기를 치른 가운데 대한항공은 팀 블로킹 1위를 달리고 있다. 4경기를 소화한 블로킹 2위 OK금융그룹보다 12개의 블로킹을 더 많이 했다. 세트당 평균 블로킹도 2.95개로 OK금융그룹의 2.94개를 근소하게 앞선다. 지난 시즌 블로킹 1위인 현대캐피탈의 최태웅 감독은 이를 대한항공 새 사령탑 로베르토 산틸리 감독이 만든 변화라고 봤다. 최 감독은 4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대한항공과 맞붙기 전 "산틸리 감독이 오고 대한항공 선수들의 블로킹에 대한 리듬이 좋아졌다. 확실히 번실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산틸리 감독은 이수황과 한상길은 물론 진지위와 조재영을 두루 활용해 중앙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산틸리 감독은 "세터와의 호흡 문제도 있어서 리듬을 찾자 (다양한 센터 활용을) 계속 시도했다. 솔직히 변화를 많이 주는 것은 나의 스타일이 아니다. 그러나 센터진의 블로킹은 많이 나아지고



지난달 30일 열린 도드람 2020-2021 V리그 배구 남자부 KB손해보험과 대한항공의 경기. 대한항공 조재영(왼쪽), 비에나가 KB손해보험 케이타의 스파이크 공격을 막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있고,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산틸리 감독은 이런 시도로 조재영의 재발견과 진지위의 성장이라는 성과를 내고 있다. 산틸리 감독은 "조재영은 그동안 전혀 뛰지 않았던 선수였는데, 팀에서 블로킹 능력이 가장 뛰어난 선수가 됐다. 조재영은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 습득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다"고 칭찬했다. 또 현대캐피탈전에서 블로킹 3개를 잡아낸 진지위 역시 "V리그에서 뭘 가치가 있는 선수라며 '두 선수 모두 코트에서 좀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산틸리 감독은 블로킹 특점을 올리는 것뿐 아니라 유효 블로킹으로 우리 팀 랭킹을 이끌어 경기 흐름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수들이 블로킹으로 후위 수비수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 상대를 가로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바운드 플레이와 반격 플레이로 우리의 공격을 이어지도록 하는 게 블로킹의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산틸리 감독은 "시즌은 길다"며 앞으로도 대한항공이 계속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가을 속으로 날린다 5일 인천 스카이72 골프클럽 오션 코스에서 열린 2020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1라운드 9번 홀에서 유소연이 세컨드 샷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 전자랜드 김낙현, 프로농구 1라운드 MVP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의 '에이스' 가드 김낙현(25)이 정규리그 1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KBL은 5일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1라운드 MVP 투표에서 유효 투표수 92표 중 52표를 얻은 김낙현이 팀 동료 이대현(19표)을 제치고 MVP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2017 신인선수 드래프트 6순위로 지명돼 프로에 데뷔한 김낙현은 2018-2019시즌 우수후보 선수상, 2019-2020시즌 기량 발전상을 받은 데 이어

인 통산 처음으로 1라운드 MVP 영예를 안았다. 김낙현은 1라운드 9경기에서 평균 25분 49초를 뛰며 14.2점 5.9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9경기 중 8경기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해 소속팀 전자랜드가 단독 선두(7승 2패)로 1라운드를 마무리하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인 김낙현은 16일 인천삼산체육관에서 열리는 고양 오리온과의 경기에서 앞서 기념 트로피와 상금 200만원을 받는다. /연합뉴스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